

# 내가 찍은 사진 전시회에 걸어볼까

## 지역 문화예술기관 잇단 사진 공모전

광주시립사진전시관 '광주의 오월은...'

3월 공모 108점 내달 2일까지 전시

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폴리 공모전'

내달 15~20일 접수 6월중 전시회

전남문화관광재단 전남 관광사진 공모

10월 16일까지 접수...대상 상금 300만원



▶광주시립사진전시관에서 전시중인 조희장 작 '광주의 봄'(1982).

요즘은 비싼 카메라가 아니더라도 스마트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누구나 아마추어 사진작가가 될 수 있는 세상이다. 지역 문화예술기관들도 이에 맞춰 각종 사진 공모전을 마련하고 있다. 혼자보기 아까운 사진들을 전문가들에게 평가받고 전시하며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다.

▶광주시립사진전시관 '광주 오월은...'은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 3월 '시민들이 광주 오월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주제로 시민 대상 사진 공모를 처음으로 진행했다. '사랑하는 가족 및 친구', '광주 풍경', '광주 5·18의 흔적을 담은 공간' 등 주제로 나눠 접수받은 결과 사진 약 170여점이 제출되며 높은 열기를 보였다. 이번 전시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108점을 5월2일까지 선보인다.

사진은 주제에 따라 '따뜻한 사람', '떠오르는 풍경',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나눠 배치됐다. 조희장씨가 출품한 '광주의 봄'은 1982

년 5월, 광주시 남구 월산동 까치고개에서 신우아파트 쪽을 바라보고 찍은 사진이다. 풍성한 유채꽃이 핀 고개에서 어린 아이를 안은 여성의 모습이 정겨운 분위기다.

강정희씨는 여학생들이 목련꽃에 종이컵을 대고 있는 '목련, 꽃술'을 찍었다. 목련꽃을 훔쳐보려 생각하는 재치가 엿보인다. 또 손주를 렌즈에 담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작품부터 5·18 공간을 기록하는 작가들의 작품까지 다양한 5월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장 한편에는 모든 응모사진을 빠르게 붙인 '광주 오월의 나무'가 설치됐다. 포토존에서 찍은 사진을 부착해 함께 완성하는 작품이다. 또 다른 사람들의 오월에 대한 생각을 볼 수 있는 '광주 오월 한줄평'도 볼거리다. 문의 062-613-7131.

▶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폴리 사진 공모전'은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광주폴리 이야기'를 주제로 광주 도심 곳곳에 설치된 광주폴리 I·II·III 중 마음

에 드는 작품을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주제와의 적합성, 작품성, 홍보성(활용가능성), 독창성 등이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5월 31일 입상작 18점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며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50만원 등 모두 18명에게 총 200만원이 수여된다.

당선작 저작권은 광주비엔날레재단 측으로 귀속되고, 추후 광주폴리 관련 홍보물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6월중 홈페이지와 SNS, 오프라인 전시회를 통해 일반 시민들도 감상할 수 있다.

접수일은 5월 15일부터 20일까지로 이메일(gifolly@gwangjubennale.org)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1인 최대 3점까지 출품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 또는 광주폴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608-4263.

▶전남문화관광재단 '2017 전라남도 관광사진 공모전'은 올해는 '남도의 감동

을 찾아서'를 주제로 자연·감동·역사·가치 등을 표현한 스토리 사진과 숨겨진 명소 등 아름답고 특색이 있는남도 풍경사진을 공모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0월16일까지이며, 지역·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작은 2016년 1월 이후 촬영된 사진으로 역대 당선작품과 유사하지 않은 미발표 작품이어야 한다. 1인당 5점까지 출품 가능하며 공모기간 참가신청서와 사진을 담당자 이메일(sunjae9@naver.com)로 보내면 된다.

총 101점을 선정할 예정으로, 2018년 1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대상은 300만원, 특별상은 100만원 등 상금이 수여된다. 모든 입상작은 전시회를 비롯해 전남 홍보자료에 활용될 예정이다.

역대 당선작은 재단 홈페이지와 남도사계와 '남도여행 길잡이'남도갤러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61-980-586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문화재단 'SIGNAL'전

내달 28일까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컬처코드 C'

광주문화재단이 5월28일까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2층 '미디어338'에서 제2차 아카이브 릴레이전 'SIGNAL'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임용현·윤일석(폴바주카) 작가가 참여해 총 5개 작품을 선보인다.

'React(반응)'은 영상 앞에 설치된 마이크를 대고 손뼉을 치거나 소리를 지르면 스크린 영상이 랜덤으로 변화하는 작품이다. 'Following Camera'(팔로잉 카메라)는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함께 움직이는 카메라로 온·오프라인 두 가지 정제성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들은 망가진 텔레비전, 카세트 테이프 등을 탐처럼 쌓아 올린 설치 작품으로 다가서면 센서가 반응해 경보음이 울린다. 그밖에 'Culture Code.C'(컬처코드 C)는 실제 콜라 캔에 흰 색을 입혀 그 위에 랜덤영상을 상영해 문화적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두 작가는 광주문화재단 2017 미디어아트레지던스 입주작가로, 용·복합그룹 'Bigfoot' 멤버다. 임 작가는 초대전 15회를 열었고 윤 작가는 초대전 4회, EDM뮤지션, 음악감독, 미디어&사운드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062-670-7492. /김용희기자 kimyh@

## '의당 신경자 서화전'



▶'신록'

27~내달 3일 아트타운갤러리

자연을 벗삼아 서화(書畵) 작업을 하고 있는 의당 신경자 작가가 아트타운갤러리에서 27일부터 5월3일까지 두번째 개인전 '의당 신경자 서화전'을 연다.

신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서예 24점, 한국화 10점, 수채화 6점 등 총 44점을 선보인다.

목포 출신인 작가는 우하 김정재, 송파 이규형 등을 사사하며 30여년간 붓을 들어왔다. 특히 이규형에게 영향을 받아 행서체에 능하다. '靜中動'(정중동), '心即佛'(심즉불) 등을 통해 행서체 매력을 전한다.

도 '眞敬養德'(진교양덕), '盡人事待天命'(진인사대천명) 등 전서와 예서, 반초서, 한글서예 등 다양한 서체를 전시한다. 수묵담채로 그린 '신록', '풍경', '가을', '장가게 일우' 등은 서정적 색채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회화 작품이다.

그밖에 '청포도', '목련' 등 한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작품도 보여준다.

신씨는 대한민국서예전람회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한·중서법교류 중국전(중국 광둥성), 일본 오사카시립미술관 초대전 등에 참여했다. 현재 동양서예학회 광주지부장, 한국서기협회 이사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32-714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사랑실은 노래봉사단' 25주년 기념공연 내달 2일 귀일민들레집

노래로 이웃사랑을 펼쳐온 '사랑실은 노래봉사단'(단장 김효중)이 올해로 결성 25주년을 맞았다.

지난 1993년 각 방송국 가요제에서 입상한 공무원, 교사, 회사원, 주부 등 90여명이 뜻을 모아 모임을 꾸린 '사랑실은 노래 봉사단'은 매달 1차례씩 복지 시설을 찾아 공연을 펼쳐왔다. 경로원, 요양원, 31사단, 국군통합병원, 교도소, 오지마을 등 단원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공연을 펼치고 사랑을 나누었다.

경로효친의 달인 5월을 맞아 오는 5월 2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귀일민들레집에서 열리는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은 25주년 기념 공연이자, 508번째 무대이기도 하다.

이번 공연에는 가수 성민하·장혜진·채나리·최진필·강성래·김산옥·봉선화씨가 출연해 '안동역에서', '자기야', '꿈나래 살가야', '십분내로' 등 흥겨운 노래를 들려준다. 또 이카루스 댄스팀, 이코러스합창단, 밸리댄스 팀(범지울 등 4명), 마술사 박성용, 5인조 퓨전 난타팀 등이 참여한다.

공연에 앞서 식전행사에는 후원 물품 전달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노래실은 사랑봉사단은 지금까지 9억 4000여만원에 상당한 성금과 물품, 공연 행사 지원 등의 활동을 펼쳤다. 김효중 단장은 "단체를 결성하고 25년간 함께 봉사할



동에 나서준 단원들과 후원금을 지원해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관심과 노래 한 자락이 소외 이웃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062-654-0576. /김미은기자 mekim@

# 불치의 질병!! 원인을 바로 알면 방법이 보인다!!!

- 본인 또는 부모가 모든 가능성을 열고 찾으시면 길이 보입니다.-



### 일광스님은

오로지 천지인(天地人)의 궁극적 이치를 깨우치기 위해 전국 산하를 주유하면서 도(道)를 탐구해온 일광스님께서 문득 회룡의 빛을 보았으니 오대산의 한 토굴에서였다. 인간의 생로병사와 사후세계가 우주 자연의 인과의 법칙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이후 일광스님은 불치환자들의 병의 근원을 보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불치병으로 평생 명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구제의 길을 열어주고자 한다.

## [정보홍수의 시대 바로 알고 노력하면 하늘도 도와줍니다.]

부처님 경전에 인간의 병에는 세가지가 있으니, ① 지수화풍의 불균형, 즉 생활습관이나 음식의 문제로 생기는 병 ② 귀신으로 인한 병 ③ 전생의 업으로 인한 병이 그것이라 했다.

이에 일광스님은 말한다. "지수화풍에 의한 병은 의사가 고칠 수 있으나, 귀신으로 인한 병이나 업으로 인한 병은 오로지 도통한 도인만이 가능합니다"

- 정신질환자(병의된 경우가 80%로 추정됨)
-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꿈에 죽은 사람이 자주 보이고 가위눌림에 시달리는 분
- 음식을 잘 못먹고 몸은 아픈데 병원의 진단에는 이상없는 분
- 원인 모를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루게릭병, 간질병, 희귀병 환자 등 불치병
- 8세 미만의 자폐증, 뇌성마비, 지적장애인, 다운증후군 환자

환자 및 가족에게 약사보살님의 가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약사암 T. 02)741-7679, 743-7679